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강좌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n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in Korean Public Libraries

이 애 란(Ae-Ran Lee)**

< 목 차 >

I. 서론	1. 평생교육 강좌의 성과
II.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강좌의 현황과 실태	2. 평생교육 강좌의 한계
1. 평생교육 강좌의 현황	IV.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강좌의 개선 방안
2. 평생교육 강좌의 실태	1. 차별성과 체계성 확립
III.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강좌의 성과와 한계	2. 평가를 위한 모형 개발
	V. 결 론

초 록

이 연구는 16개 광역시·도 지역대표도서관의 평생교육 강좌의 유형, 내용, 수준 현황과 울산광역시 소재 4개 공공도서관의 학습목적, 강좌내용, 수업방법의 구체적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강좌의 개선방안을 차별성과 체계성 확립 그리고 강좌 평가를 위한 모형 개발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성인교육, 교육프로그램, 강좌

ABSTRACT

The study is on the types, contents, characteristics, and level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rom 16 central and local public libraries in Korea. And also analyzes the situation and the results of learning purpose, educational content and teaching methods from 4 public libraries of Ulsan provinc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suggests for the improvement proposal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in Korean public libraries as follows : (1) proposes the differentiation and establishment of system for the programs, (2) presents the model development for the evaluation of the educational programs.

Keywords: Public Library, Lifelong Education, Adult Education, Education Program, Course

* 이 연구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울산과학기술원 평생교육원 교학행정팀장(erlee@mail.uc.ac.kr)

• 접수일: 2010년 2월 26일 • 최초심사일: 2010년 3월 17일 • 최종심사일: 2010년 3월 26일

I. 서론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원인은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면서 공공도서관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교육재정지원 사업이 확대되자 공공도서관이 자료와 정보를 매개로 한 강좌보다 기존 인기 강좌의 개설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 참여자가 급증하는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도서관 기반 강좌와 관계가 적은 성인중심의 교양 및 취미 위주의 평생교육 강좌가 증가하면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학계나 현장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런 증거는 국내외 연구논문이나 기관의 내부 자료를 조사하면 여실히 드러난다.

먼저, 국내의 관련 연구에서는 교육 강좌의 대부분이 여가를 이용한 취미나 교양분야의 기초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공공도서관들이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모방하여 시행하면서 도서관이나 독서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¹⁾ 구체적으로 2000년 말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기능 수행과 밀접한 자료봉사와 문학강좌의 개설 비율은 전체의 24.5%에 불과했다.²⁾ 또한, 2004년 말 광역지자체 산하의 16개 대표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실시현황 조사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총 241개 강좌를 개설하는 가운데 취미 및 공예(22.4%)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문학강좌(22.0%), 미술 및 서예(14.5%), 어학(13.3%), 도서관 자원봉사(2.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자료봉사와 문학강좌의 개설 비율이 2000년 상황과 비교할 때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2009년 전북지역의 시별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의 내용 분석은 구분체계가 달라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자료 관련 프로그램인 자료중심, 어학, 정보화 프로그램 영역이 예술과 가족, 전통문화, 기타 프로그램 영역보다 적게 운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게다가 지자체 직영의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상당 부분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기관의 성격과 관계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³⁾ 2004년의 상황과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공 및 민간부분이 제공하는 일반적 프로그램과 다를바 없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습자 맞춤형 직업기술 강좌를 개발함은 물론 기초 및 교양, 직업·기술·전문교육, 건강 및 보건, 가족생활, 시민생활, 여가사용 분야 등으로 다양화시키고 교육수준도 향상시켜

1) 광동철,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적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 제36권, 제2호(2005. 6), p.101.
2) 윤희운, “평생교육과 공공도서관의 함수관계,” 사회과학연구(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0집, 제1호(2002. 9), p.70.
3) 최흥식, 서진순, “전북지역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분석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12), pp.241-242.

야 함을 제안하고 있는 정도이다.

한편, 국외의 연구 사례를 조사해 보면 국내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공공도서관의 주요 교육 방향은 기초문해교육과 학습장애우 교육과 같은 소외계층 강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Lyman이 구분한 문해 4단계인 문맹, 기본문해, 기능문해, 성인문해 강좌에 치중하고 있으며, 영국도 성인문해를 없애기 위하여 Vital Link라는 기금을 조성하여 5년이 넘도록 138개 공공도서관에 교육 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덴마크는 컴퓨터 이용과 정보검색을, 노르웨이는 이용자 친화적 교육 강좌를 수준별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주의 퀸즈랜드주 골드코스트에 소재하고 있는 11개의 공공도서관들이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총 41개의 교육 강좌에서는 컴퓨터 관련 강좌인 컴퓨터기초반 과정(courses for beginner computer users)⁴⁾과 기술박람회(techno expo)⁵⁾ 강좌가 11개(26.83%), 소비자보호서비스⁶⁾ 9개(21.95%), 독서클럽(clubs for book lovers)⁷⁾ 8개(19.51%), 가족의 역사(family history)⁸⁾ 7개(17.07%), 수공예(get crafty)⁹⁾ 2개(4.88%), 요가 2개(4.88%), 쿡후 1개(2.44%), 책 만들기(scrapbooking)¹⁰⁾ 1개(2.44%)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¹¹⁾ 이 조사에 의하면, 강좌의 유형과 비율은 도서 및 독서

- 4) 교육내용은 1주 차에 마우스 작동, 2주 차에 컴퓨터의 주요 개념과 특성, 3주 차에 웹 등에 관하여 3주 동안 실시.
- 5) 1일 차(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내용은 웹, 디지털사진기술, 사진편집 및 전송, MP3 작동, 온라인뉴스이며, 2일 차(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내용은 웹 버전업, 온라인도서관검색, 휴대전화, 전자음향도서 내려받기 등으로 단기과정 운영.
- 6) 공정거래, 소비자권리와 보호, 환급, 보장, 방문판매, 원거리판매, 사기 등 교육.
- 7) 도서나 음향도서에 관심 있는 다양한 나이 그룹이 월 1회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혹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
- 8) 가족사(족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사적 신문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사를 편집. 월 1회 운영.
- 9) 뜨개질 과정은 월 1-2회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혹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운영.
- 10) 책 만들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월 2회 운영.
- 11) 호주의 퀸즈랜드주 골드코스트(Gold Coast)에 소재한 공공도서관 11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강좌이며, 이 자료는 2008년 6월~7월 한 달간 머물면서 수집 정리함.

공공도서관	교육 강좌
Helensvale	독서클럽, 컴퓨터기초, 소비자보호, 수공예
Runaway Bay	독서클럽, 컴퓨터기초, 책 만들기, 가족사
Southport	독서클럽, 컴퓨터기초, 소비자보호, 가족사
Nerang	독서클럽, 컴퓨터기초, 소비자보호, 가족사
Robina	독서클럽, 컴퓨터기초, 소비자보호, 요가, 쿡후, 가족사
Broadbeach	독서클럽, 컴퓨터기초, 소비자보호, 기술박람회, 가족사
Burleigh Heads	독서클럽, 컴퓨터기초, 소비자보호
Burleigh Waters	가족사, 컴퓨터기초
Elanora	독서클럽, 컴퓨터기초, 소비자보호, 요가, 가족사
Coolangatta	소비자보호, 컴퓨터기초
Runaway Bay	소비자보호, 수공예
11개 기관(41개 강좌)	컴퓨터관련 강좌 11개(26.83%), 소비자보호 9개(21.95%), 독서클럽 8개(19.51%), 가족사 7개(17.07%), 수공예 2개(4.88%), 요가 2개(4.88%), 쿡후 1개(2.44%), 책 만들기 1개(2.44%)

(39.02%), 컴퓨터와 인터넷(26.83%), 시민 생활서비스(21.95%), 건강(7.32%), 취미(4.8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도서나 정보 그리고 시민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강좌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교양 및 취미강좌가 중심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강좌 운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공공도서관이 주민에게 제공하는 평생교육 강좌에서도 그 제공 유형과 비율이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도서·영화토론과 감상, 문화공연, 여행이나 취미와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 부모역할지도, 재정계획과 투자정보 제공, 고용과 경력개발지도, 대학·계속교육 지도, 시민권 준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이 도서관 기반 및 공공성이 낮은 강좌 구성으로 인해 야기된 정체성 문제가 국내·외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현황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국내·외에서 생산된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강좌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구체적 사례분석이 미흡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성과를 조사하여 강좌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그리고 면담과 관찰을 통해 수집하였다. 먼저 강좌의 전반적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 지역대표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업무의 실무자와 강사, 학습자 각 1명을 선정하고 강좌의 유형, 내용, 수준 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16개 광역시·도 지역대표공공도서관의 현황조사로는 구체적인 실태나 성과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울산지역 4개 도서관(울산남부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울산동부도서관, 울주도서관)을 사례로 강좌의 실태를 3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더불어, 설문자료를 보완하려고 울산의 대표도서관인 울산남부도서관의 강좌에 참여한 학습자와 강사 그리고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더불어 남부도서관에서 실시한 강좌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학습자와 강사들의 다양한 행태를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II.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강좌의 현황과 실태

1. 평생교육 강좌의 현황

가. 유형과 특성

공공도서관의 교육 강좌는 정치적 및 사회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동태적 성격을 지닌다. 가령, 일제 강점기에는 문맹을 퇴치하고 자아의식을 고취해 자주와 독립을 위한 계몽환

12) 윤희운, “도서관 평생학습활동의 성찰과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4호(2006, 12), p.55.

동, 한국동란 이후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직업 및 기술 교육, 1970년대에는 여가활용 또는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활동, 1980년대에는 공공도서관이 학생들의 공부방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공간으로서의 위상 회복을 위해 성인 교육강좌를 개설·운영하여 왔다.

이렇듯 평생교육의 강좌의 범위도 법적 변화에 따라 사회교육법이 적용될 때는 1) 기초 및 교양 교육 2) 직업, 기술, 전문교육 3) 건강 및 보건교육 4) 가족생활교육 5) 지역사회교육과 새마을교육 6) 여가교육 7) 국제이해교육 8) 국민독서교육 9) 전통문화 이해교육 10) 기타 학교교육 이외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이와는 달리 수강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공무원교육, 농민 교육, 여성교육, 노인교육, 근로자교육, 청소년교육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재정립된 평생교육 강좌의 범주는 성인기초교육, 시민성교육, 직업교육훈련, 학력인증교육, 자기개발교육 등의 5가지 대분류와 17가지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분류에 근거하여 도서관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범주로 요약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¹³⁾

<표 1> 도서관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분류	중분류	프로그램 예시
성인 기초 교육	기초문해교육(basic literacy)	기초문해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 관련 교육프로그램(IALS기준 Level 1-2)
	학력 기준 성인기초교육	초중등 학력 기준 성인기초교육 프로그램
	생활기술(life skill)교육	기능문해 수준의 성인기초교육 프로그램 : 의사소통, 문서문해, 수리문해, 독해문해 등(IALS기준 Level 3 이상)
시민 성교육	시민의식교육	환경의식, 소비자의식, 성인의식, 노동의식, 보건의식, 공동체의식, 국제이해교육 등
	시민역할 교육	부모교육, 노년준비교육 등
	시민참여교육	자원봉사, 주민자치, 정치참여 등
직업 교육 훈련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IT계열 포함)
	취업/창업 준비 교육훈련	공공시설, 산업체, 민간단체·기관에서 취업/창업준비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경력개발 교육훈련	공공시설, 산업체, 민간단체·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학력 인증 교육	고등교육 학력인증 교육	학점은행제/독학사학위/성인학습과정 등
	중등교육 방계 학제	방통고, 공민학교, 검정고시 대비, 그 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자기 개발 교육	건강/스포츠	건강, 보건, 스포츠 관련 교육프로그램
	외국어 교육/IT 관련	외국어 관련 어학교육, 정보화 능력
	인문교양	역사, 문학, 철학, 과학기술, 경제 관련 교육프로그램
	문화예술	문화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심성개발	자아이해, 성격유형, 대인관계 등 심성개발 교육프로그램

13) 김창환 등, 평생교육통계조사 및 DB 구축 방안 연구(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3), p.19.

〈표 1〉의 도서관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범주를 토대로 하여 16개 대표공공도서관이 시행한 평생교육 강좌의 내용에 대하여 분석해 놓는 것이다. 먼저, 성인기초교육은 기초문해교육(Basic Literacy), 학력기준 성인기초교육, 생활기술교육(Life Skill) 등으로 구성되며 성인들이 기초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능력 증진 및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의미한다.¹⁴⁾ 우리나라의 성인 문해수준은 고학력의 성인 비율이 높음에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는데, 실제로 절대 한글 비문해자가 8.4%이며,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비문해자가 24.8%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¹⁵⁾ 따라서 성인기초교육은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처럼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성인기초교육인 기초문해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아 다른 평생교육기관에 그 기능을 빼앗기고 있다.

둘째, 시민성교육은 환경의식, 소비자의식, 환경의식교육, 근로자의식 등의 ‘시민의식교육’, 부모교육, 노년준비교육 등의 ‘시민역할교육’, 자원봉사, 주민자치 등의 ‘시민참여교육’으로 구성된다.¹⁶⁾ 공공도서관에서는 주로 시민역할교육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교육에 치우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부모교육은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독서지도, 독서요법, 신문활용교육, 동화구연지도 등이 중심을 이룬다. 이 교육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은 처음에는 부모로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고자 참여하게 된다. 독서지도나 신문활용교육은 성인 자신을 위한 자기계발교육에 포함된 인문교양 영역이기보다 자녀의 교육을 원조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자녀 지원 강좌는 지속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점차 자기계발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부모교육과 자기계발교육은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

한편, 시민참여교육은 공공도서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자가 자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받은 교육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수료자는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독서회 활동을 돕고자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며, 독서신문 만들기 수업에 보조교사의 역할을 자원한다. 이러한 인력들은 자신이 수료한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었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은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및 창업 준비 그리고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¹⁷⁾ 공공도서관의 교육 범위나 수준이 대부분 ‘교양’, ‘초급’, ‘기초’ 과정이므로 자격증이나 취업으로 연결되는 직업교육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공공도서관이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되어 있거나 대학과 컨소시엄을 이룬 소수기관에서만 자격증 취득 및 취업 그리고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는 정도이다. 공공도서관에서 개설하는 민간자격증과정으로는 독서지도사, 독서요법사,¹⁸⁾ 미술요법사, 글쓰기지도사, 논술지도사, 신문

14) 상계서.

15) 상계서, p.20.

16) 상계서.

17) 상계서.

활용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스피치리더십, 발판리사, 일본어 검정 4급 등이 있으며, 국가공인자격증으로는 워드프로세서 2급, 정보활용능력 2급 등이 있다.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한 학습자 중에는 가정에서 홈스쿨을 운영하여 직업창출을 하거나, 자신의 직업 영역의 직무향상을 기하기도 하고, 다른 기관으로 전직을 모색하는 때도 종종 있다.

넷째, 학력인증교육은 정규교육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이다. 공공도서관은 비정규교육기관이지만 문해교육이나 자격증취득을 통해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 학업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검정고시 없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마련하여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일선 학교가 협약을 맺고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학력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¹⁹⁾

다섯째, 자기계발교육은 건강과 스포츠, 외국어 및 정보화교육, 인문교양, 문화예술, 심성계발과 관련된 교양프로그램 등이다.²⁰⁾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 교육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건강과 스포츠 강좌에 참여하는 학습자 중에는 남편이나 자녀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교육을 받으면서 없애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령,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일 경우 수업시간에 오가는 교육교감이나 활동을 통해 어느새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교육이 학습자들의 정신이나 육체적 건강에 유익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젊은 학습자와 달리 프로그램 그 자체를 즐기는 50대 이상의 학습자들은 나이 들에 따른 무력감에서 해방되고 삶의 활력을 찾는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더욱이 할머니들은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전에는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몰랐는데 아이들을 위해 동화구연을 하면서 자신이 후대에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외국어교육 강좌는 생활회화반(기초와 중급)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많았다. 학습자가 같은 어학 강좌를 지속적으로 재수강함으로써 어느 순간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여행사를 따라가지 않고도 학습자들끼리 어학연수를 계획할 만큼 자신감을 얻게 되며, 교수법 전공자인 원어민 강사가 강의해야 어학교육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자기주장을 할 정도로 실력과 안목이 향상되었다.

한편, 정보화교육은 컴퓨터 사용과 인터넷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본적 내용으로 주로 구성된다. 도서관은 이 교육을 위해 컴퓨터 기기의 주기적 교체와 관리가 필요할뿐더러 다른 강의실과 달리 컴퓨터실은 활용도가 낮아서 16개 광역시·도의 지역 대표공공도서관 중에서 8개 기관만이 강의를 개설하고 있었다.

인문교양 및 문화예술교육은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의 주요 분야이다. 교양강좌를 통해 작가를 만

18)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6월, 평생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강좌명에 '치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 48개 평생학습도시에 우선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중점과제별 보도자료(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2006), p.70.

20) 김창환, 전계서, p.21.

나고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소개받고 접하다 보니 모르는 분야에 대한 깨우침의 계기가 되고, 강좌의 참여횟수가 많아지면서 교양지식도 높일 수 있어 궁극에는 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성계발교육은 앞에서 언급한 제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부수적 교육 효과이다. 심성계발과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도서관 강좌들은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자아발전, 자신감 및 자기주장 증진, 자아존중 및 만족감 획득, 대인관계 향상 등이었다.

나. 강좌의 내용

지금까지 설명한 도서관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범주에 기초하여 16개 지역 대표공공도서관이 2006년에 개설한 강좌의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16개 광역시·도 지역 대표공공도서관의 강좌 개설 집계표

기관	내용 범주	강좌 유형	강좌 명
16개 광역시·도 지역대표 공공 도서관 (293)	자기계발교육 (236)	취미 및 교양 (145)	가야금(2), 고전의향기, 규방공예, 꽃꽂이(3), 한지인형, 한지공예(3), 노래교실, 다도, 다종이공예, 다종이인형(2), 대금, 도자기공예(3), 동양화(3), 들꽃가꾸기(심화), 디지털카메라(2), 리본자수선물포장(2), 맛있게 즐기는 미술감상, 맹자, 목공예, 묵화, 문예(시, 소설, 수필)창작(7), 문화답사길라잡이, 미니정원만들기, 미술교실, 민요(3), 부동산재테크 및 소자본창업, 비즈공예와퀵트(4), 사군자초급(4), 사군자중급, 사진교실초급(2), 사진교실중급, 산수화반, 수채화초급(7), 수채화중급, 생활도예(기초, 중급), 생활도자기(2), 생활속 역학과 풍수지리(3), 서양화교실기초(2), 서양화교실중급, 서예기초(13), 서예중급(4), 성공하는 평생교육실무전략, 수묵화(기초, 중급), 퀵트(3), 압화(프레스플라워), 유화초급(2), 유화중급(2), 의류리폼과생활양재, 이미지메이킹(2), 이야기교실, 일상속의글쓰기, 장구, 명리학(3), 재테크(2), 전각, 전통음식(기초, 중급), 천연비누 & 화장품만들기(3), 추억의 포크기타, 판소리, 패션페인팅, 플라워디자인아트(2), 하모니카 & 기타연주, 한국무용, 한국세필화, 한국화교실(2), 한글서예(초급, 중급), 한문서예(3), 해동속소학, 해설이 있는 국악여행, 해설이있는 클래식음악여행, 핸드페인팅, 향토문화, POP & 풍선, POP예쁜손글씨, 파워프리젠테이션
		외국어교육 (57)	일본어초급(13), 일본어중급(3), 영어회화초급(14), 영어회화중급(5), 중국어회화기초(13), 중국어회화중급(3), 한문교실기초(4), 한문교실중급(2)
		IT교육 (17)	엑셀, 워드프로세서, 컴퓨터강좌기초(5), 컴퓨터강좌중급(3), 컴퓨터활용능력, 파워포인트(2), 포토샵, 실버컴퓨터교실, 실버컴퓨터기초활용반, 실버컴퓨터인터넷활용반
		건강/스포츠 (17)	단전호흡, 요가(2), 건강수맥과 생활풍수(2), 아로마테라피, 어르신칼라클레이, 태극권1, 2, 건강기체조, 참살이요가스트레칭, 발건강관리, 웰빙건강노인교실, 세라밴드트레이닝, 덴스스포츠기초(2), 덴스스포츠중급,

기관	내용 범주	강좌 유형	강좌 명
16개 광역 시·도 지 역대표 공 공 도서관 (293)	시민성교육 (35)	시민역할교육 (35)	논술교실, 독서·논술지도, 독서치료(2), 책으로 여는 유쾌한 세상(독서), 독서지도사, 동화구연기초(4), 동화구연중급, 문고지도사, 부모역할교육(2), 부모와자녀의 대화법, 신문활용교육, 아동미술지도기초, 엄마랑나랑동화구연, 엄마와함께종이접기, 엄마표글쓰기지도, 영어동화읽기, 우리아이빛내기프로젝트, 유아독서지도법, 인형극공연, 자녀독서지도(5), 자녀를 위한 논술지도, 자녀를 위한 상담심리교육, 창의 독서논술지도, 책만들기, 엄마랑칼라점도 점핑클레이
	직업교육훈련 (11)	자격취득 (11)	글쓰기지도사, 논술지도사심화, 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1급, 2급), 동화구연지도사, 미술치료사(1급, 2급), 발관리사초급, 스피치리더십, NIE 지도사
	성인기초교육(8)	기초문해교육(8)	생활속 한글익히기, 한글첫발 내딛기, 한글교실초급(5), 한글교실중급
	학력인증교육(3)	검정고시(3)	검정고시(초등, 중등, 고등)

* ()안의 숫자는 강좌의 수업.

위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개 광역시·도 지역 대표공공도서관에서는 강좌의 내용을 총 293개 개설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기계발교육은 236개로 그 중 취미와 교양과정은 145개, 외국어교육 57개, IT교육과 건강·스포츠과정은 17개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성교육의 시민역할교육은 35개, 직업교육훈련과정중 자격취득과정 11종, 성인기초교육의 기초문해교육은 8개, 학력인증교육은 3개로 구성된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에서 개설하는 교육내용은 자기계발교육, 시민성교육, 직업교육훈련, 성인기초교육, 학력인증교육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자기계발교육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강좌의 수준

16개 대표공공도서관에서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은 강좌의 수준에 대해 ‘개(관)괄적’이고 ‘기초적’이며 또한, ‘깊이 부족’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수준이 비교적 낮음에도 학습자들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자녀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또 다른 교육욕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학습자들이 기초교육 수준에 따른 아쉬움이 남더라도 공공도서관의 기초와 교양교육을 선호하는 것은 학습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한 교육을 가정교육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또한, 강사의 관점에서 그들은 교육내용과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강사들은 자신이 담당해야 할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내용으로 도서관 기반의 기본교육, 기초생활 유지교육, 그리고 자녀지원 교육 등을 꼽았다. 교육수준은 ‘전문교육’보다는 ‘일상적인 고민’, ‘대중화’, ‘실생활 연계’ 등에 초점을 둔 기본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강사의 이러한 관점에는 도서관 측으로부터 초급수준의 강의를 요청받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강사들은 특정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숙지하거나 생활관련 고민이나 문제

를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도록 하였다. 그들은 수업의 목표를 특정인을 전문가로 육성하기보다는 많은 학습자를 교육에 참여시켜 공통의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데 두고 있었다. 특히 자녀교육 관련 강좌가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의 중심축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강좌들은 부모들이 실제로 교육받은 내용을 집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내용과 수준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2. 평생교육 강좌의 실태

앞서 거시적 관점에서 16개 광역시·도 지역 대표공공도서관의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시적 관점에서 울산 지역의 4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강좌의 속내를 들여다보고자 학습목적, 강좌내용, 수업방법 등을 조사해 보았다.

먼저, 현재 참여하는 강좌의 학습목적이 무엇인지는 질문에서는 ‘지식향상 및 자아발전’이 44.54%, ‘교양증진 및 여가선용’이 32.79%, ‘생활에 필요한 정보습득’이 13.93%, ‘기타’가 8.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기타의 내용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사회참여 또는 봉사를 위해’, ‘수료증 취득을 위해’ 등이었다. 이런 사실로 보면 학습자의 주요 학습목적은 사회참여나 수료증 취득보다는 자아발전이나 교양증진 그리고 여가활용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경향은 16개 광역시·도 지역 대표공공도서관 현황 조사결과와도 큰 차이가 없었다. 주목할 점은 울산지역에 대한 조사에서 학습목적이 도서관들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었고, 도심권에 있는 A와 D도서관은 ‘지식향상 및 자아발전’을 위하여 등록하는 학습자가 많았으나 도심지를 벗어난 곳에 있는 B와 C도서관은 ‘교양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등록하는 학습자가 많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역에 따라 강좌의 선호도가 다르므로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학습자 요구분석을 통해 강좌개설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학습목적(강좌의 등록 동기)

구분		지식 향상 및 자아발전	교양증진 및 여가선용	생활에 필요한 정보 습득	기타	계(%)
항목	합 계	163(44.54)	120(32.79)	51(13.93)	32(8.75)	366(100)
	A도서관	66(54.10)	22(18.03)	22(18.03)	12(9.84)	122(100)
	B도서관	37(42.05)	37(42.05)	10(11.36)	4(4.54)	88(100)
	C도서관	32(31.37)	55(53.92)	3(2.94)	12(11.76)	102(100)
	D도서관	28(51.85)	6(11.11)	16(29.63)	4(7.40)	54(100)

두 번째로 학습자들은 통상적으로 1개 이상의 강좌를 수강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좌의 내용으로는 ‘취미·오락·여가교육’이 40.82%, ‘기초생활 및 일반교양교육’이 24.60%, ‘독서교육’이 18.60%,

‘어학교육’이 10.14%, ‘건강·보건·스포츠교육’이 4.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6개 광역시·도 지역 대표공공도서관 현황 조사결과와도 큰 차이가 없이 ‘자기계발교육’의 영역에 포함되는 취미 및 교양 강좌에 학습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서관 기반의 성향이 강한 강좌 구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 나이가 40대 미만에서는 자녀지원강좌, 40~50대에서는 자기계발강좌, 50대 이상에서는 건강강좌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역이나 나이에 따라 강좌의 선호도가 다르므로 지역사회 인구의 특성이거나 학습자 요구분석을 통해 강좌개설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강좌내용

항목	구분	기초생활 및 일반교양교육	취미, 오락, 여가교육	건강, 보건, 스포츠교육	어학교육	독서교육	계(%)
기관	합 계	106(25.60)	169(40.82)	20(4.83)	42(10.14)	77(18.60)	414(100)
	A도서관	36(25.35)	28(19.72)	6(4.23)	24(16.90)	48(33.80)	142(100)
	B도서관	25(24.04)	57(54.81)	9(8.65)	12(11.54)	1(0.96)	104(100)
	C도서관	31(28.44)	66(60.55)	3(2.75)	3(2.75)	6(5.50)	109(100)
	D도서관	14(23.73)	18(30.51)	2(3.39)	3(5.08)	22(37.29)	59(100)
연령	40세 미만	48(26.97)	81(45.51)	7(3.93)	26(14.61)	16(8.99)	178(100)
	40~50세	41(29.71)	72(52.17)	8(5.80)	13(9.42)	4(2.90)	138(100)
	50세 이상	13(37.14)	14(40.00)	5(14.29)	2(5.71)	1(2.86)	35(100)

세 번째로, 수강한 강좌의 수업방법을 조사하였더니, ‘강의와 실습’이 65.40%, ‘강의’가 24.05%, ‘기타(실습, 견학)’가 5.87%, ‘토의’가 4.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도서관에서는 ‘강의’ 중심의 이론 강좌가 많으며, B, C, D도서관에서는 ‘강의와 실습’을 적절히 혼합한 강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B와 C도서관은 A와 D도서관 강좌와 비교하면 강의와 실습을 혼합한 수업방법을 채택한 강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만들기 강좌’와 같은 문화예술 관련 강좌가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되었기 때문이었다(표 5 참조).

〈표 5〉 수업방법

항목	구분	강 의	강의와 실습	토 의	기타 (실습, 견학)	계(%)
기관	합 계	82(24.05)	223(65.40)	16(4.69)	20(5.87)	341(100)
	A도서관	52(46.43)	40(35.71)	15(13.39)	5(4.46)	112(100)
	B도서관	8(9.76)	71(86.59)	1(1.22)	2(2.44)	82(100)
	C도서관	2(2.11)	88(92.63)	0(0.00)	5(5.26)	95(100)
	D도서관	20(38.46)	24(46.15)	0(0.00)	8(15.38)	52(100)

Ⅲ.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강좌의 성과와 한계

1. 평생교육 강좌의 성과

지금까지 울산지역 4개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속내를 학습자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인 학습자의 강좌 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강좌의 성과는 교육평가의 한 차원이며, 교육목적이나 학습목표와 관련지어 사정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처지에서 정의한다면 교육성과는 교육경험으로 얻게 되는 이득(혜택)이며 학습자의 지식, 태도, 기술, 행동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²¹⁾ 이러한 평생교육 강좌의 성과를 논의하려고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11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였으며, 답변은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의 전반적 성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3개 영역 11개 하위영역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전반적 교육 성과

영역	하위영역	평균
개인적 자본	신체적·정신적 건강	4.2024
	자기개발, 자아실현, 자질향상	4.3333
	교양증진 및 여가선용	4.3690
소계		4.3000
인적자원개발 자본	취업, 전직, 직업수행능력	3.4179
	사회적 인정	3.5119
	필요한 지식과 정보	4.1369
	자격증 취득	3.0478
소계		3.5300
사회적 자본	사회변화의 적응 지식과 능력	3.7701
	대인관계 향상	4.0625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3.4866
	자녀에 대한 도움	4.0537
소계		3.8400
합계		3.8900

울산의 4개 지역 공공도서관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 교육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하였더니, 5점 척도에 평균 3.89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교육성과에 대한 학습자들의 전반적 반응은 '다소

21) 김에런,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학습성과 인식 연구(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2004), p.53.

긍정적'이었다. 이것을 영역별로 분석하면, 개인의 자본 영역이 4.30으로 교육성과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 영역이 3.84, 인적자원개발 자본영역이 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하위영역에서는 개인의 자본 형성과 관련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4.2024, 자아개발, 자아실현, 자질향상이 4.3333, 교양증진 및 여가선용이 4.3690 등으로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자본 영역에서는 취업, 전직, 직업수행능력이 3.4179, 사회적 인정이 3.5119, 필요한 지식과 정보 4.1369, 자격증 취득이 3.0478 등으로 나타나 필요한 지식과 정보 이외에는 모든 항목에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 영역에서는 사회변화의 적응 지식과 능력이 3.7701, 대인관계 향상이 4.0625,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이 3.4866, 자녀에 대한 도움이 4.0537 등으로 조사되어 대인관계 향상과 자녀에 대한 도움 성과는 긍정적이었으나 사회변화의 적응 지식과 사회참여나 봉사활동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6 참조).

이러한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성과를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²²⁾ 비록 같은 자료나 항목이 아니어서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다른 평생교육기관에 비해 울산지역 평생교육의 교육성과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세 가지의 성과 영역 중에서 개인적 자본 영역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공공도서관의 강좌가 자기개발이나 자아실현, 교양증진 및 여가선용,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강좌를 많이 포함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평생교육 강좌의 한계

지금까지 울산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자료와 울산광역시 4개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토대로, 평생교육 강좌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성과를 논의하였다. 이제 16개 광역시·도 대표도서관의 현황과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미시적으로 조사한 실태 결과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강좌의 문제점을 평생교육 참가자인 학습자와 강사 그리고 운영자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가. 학습자의 불만과 요구

학습자들이 교육강좌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으로는 '심화교육의 부족'과 '강의 방법의

22) 최운실(2005)이 서울, 광주광역시, 춘천, 창원, 금산 등 5개 도시에서 3,050명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의 전체적 평균값이 모두 3.0 이상으로 평생교육을 통한 학습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로도 개인적 자본 영역의 학습성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자본(3.21), 인적자원개발 자본(3.11) 등으로 나타났다. 최운실 등, 한국 평생교육의 총체적 진단과 발전 모델 구상 연구(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5), p.345.

부적합' 그리고 '교육의 피드백 부족' 등이었다.

먼저, 심화교육의 부족으로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기관에 잔류하거나 또 다른 기초 교육기관으로 이동하고 있어 교육의 완성도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는 도서관의 평생교육이 '기초교육'에 중심을 두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부족한 교육기간을 보완하려고 지속적으로 기초반에 잔류하게 되는데 심화반으로의 연계 없이 이들이 잔류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막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성과도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교육을 수료하고 동아리활동을 지속하지만, 도서관의 지원이 거의 없어 자체적으로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었다.

이어 강사의 강의방법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학습자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불만은 이론 중심 강의나 수준별 교재 미편성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실제 생활과 연계되지 않거나 이론중심에 치우치면 중도포기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초급이나 중급 구분 없이 한 교재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강좌에 대한 불만 또한, 매우 컸다.

또한, 교육수행에 따른 강사와 학습자 간의 '교육피드백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있었다. 학습자들은 과제에 대한 강사의 평가를 받고 싶었지만 여러 이유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과제제출을 꺼리는 학습자들의 학습태도와 실습수업의 적절성을 평가할 지침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강사의 불만과 요구

강사들이 교육강좌와 관련하여 지적하는 문제점은 '도서관기반 및 실생활 밀접 강좌의 부족'과 '교육강좌의 과정별 세분화 및 수준별 교육 부족'으로 요약된다.

먼저, 도서관의 강좌 구성을 사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강사의 요구가 거의 배제된다는 것이다. 강사들은 도서관 사서가 기획한 강좌의 방향에 따라 강좌의 내용이 맞춰지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강사들은 도서관 측이 책과 관련된 강좌를 구성하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그러한 강좌가 일반 시민의 생활에 도움되는 강좌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도서관의 기관적 정체성과는 관련이 적은 음악 강좌나 장시간 공간사용을 요하는 그림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강사들은 개설 강좌의 내용이 과정별로 세분화되기보다 개론적이어서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가령, 컴퓨터기초반을 개설할 때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세분화하여 개설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가르치면 교육의 효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문예창작반도 마찬가지인데 시나 수필 그리고 소설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아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즉 학

습자가 필요한 과목 중에서 자신의 전공영역이나 필요한 부분에만 재차 청강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다. 운영자의 불만과 요구

조사에 참여한 운영자들은 교육강좌와 관련하여 '연계교육의 부족'과 '강좌의 정체성 부족' 그리고 '공공적 영역의 강좌 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먼저, 상위기관과의 연계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운영자들은 심화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른 상위기관과 교육 연계체제를 구축하려 시도하지만 기관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되고 교육연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마는 실패 경험도 안고 있었다. 또한, 운영자들은 학습자의 요구와 계속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아리 반이라도 장려하려고 노력하지만, 동아리활동 지원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게 되면 특정그룹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다양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강좌 참여를 저해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소극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특히, 비교적 교육기간이 긴 서예나 그림 강좌는 이미 수료한 자가 재차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사제시간으로 발전할 정도로 강사와 학습자 간에 '친밀성'이 형성된 상태이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학습자가 수업에 동참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학습자 간 수준 차이가 있음은 물론 기존 학습자들 위주의 특별지도 경향을 띠게 되어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궁극적으로는 지속교육생으로 말미암은 관리의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자들은 강좌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도서관 기반의 특성화 강좌를 개발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안타까워하였다. 가령, 도서관의 특성을 살린 강좌를 모집하면 학습자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선호하는 취미 및 교양강좌로 되돌아오게 되어 체질 개선이 어렵게 된다. 특히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나 학습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은 이들 각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특색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정책적 모순이 있어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알면서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음을 역설하였다.

이에 더해 운영자들은 공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강좌를 개발하여 운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정체성 문제를 인정하였다. 도서관이 평생교육에 예산을 투자하면 그 투자한 결과에 대한 운영 실적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소수 인원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어 신설 강좌의 개설이 어렵게 된다. 특히, 공공성과 관련된 강좌의 개발은 일부 의욕을 가진 운영자들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확대하고 싶지만, 도서관보다 기반 시설이 좋은 노인복지기관을 노인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진다. 이에 더해 학습자가 좋아하는 인기 강좌를 운영하여 성과를 높이려고 생각하니 소극적이고 조심성 있는 강좌로 귀결되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다.

IV.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강좌의 개선 방안

전술한 2장과 3장에서 참가자와 운영자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교육강좌와 관련된 문제들은 주로 교육내용과 교육수준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외에 교육방법과 평가 등에 연관된 문제 또한, 제기되었다. 강좌의 교육내용이 도서관 기반을 살린 강좌가 적어 다른 평생교육기관과 차별화가 없다는 것과 공공도서관의 교육수준이 기초교육에서 더욱 향상된 교육으로 연결되지 않아 평생교육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론이나 실습방법의 편성 기준이 없어 비체계적으로 운영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차별성과 체계성 확립

가. 강좌의 차별성 확립

앞서 논의하였듯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의 주요내용이 자기계발교육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부 중심의 양적 프로그램에 치우쳐 도서관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외국의 주요 교육내용은 기초문해교육에 주력하면서 정보문해해소를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이나 도서관 자원을 활용한 도서·영화토론 및 감상이나 문화공연 등에 주력하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강좌와 소외계층과 관련된 공공적 성격의 강좌를 그 밖의 프로그램과 분리하여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되, 문자해득력 강좌와 기타문화 강좌를 엄격히 구분하고 전자에 치중하여 다른 평생교육기관들과 차별화된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다른 교육 및 문화시설이 제공할 수 없는 영역을 보완하고 있다.²³⁾ 이와 같은 시각에서 우리 공공도서관에서도 성인의 기초교육 중에서도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읽고, 쓰고, 셈하는 기초문해교육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문해교육이나 정보활용교육, 주부의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시민문해교육, 인본주의적 가치와 관련해서 특정한 공공 문제를 토론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문화문해교육(독서교육 포함) 등을 선택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도서관 자원을 기반으로 하지 않거나 소외계층과 관련된 공공적 성격의 강좌와 거리가 있는 교양 및 취미 강좌들은 이제 다른 평생교육기관으로 이양하도록 방향성을 재정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정체성 논란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사서의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윤희윤, 전계논문, p.55.

(1) 도서관 기반 특성화 강좌 개발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내용은 자기계발교육을 중점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그 중 취미 및 교양과정, 외국어교육, IT교육, 건강·스포츠 등과 관련된 강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강좌들은 공공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평생교육기관에서도 백화점식으로 구성하고 있어, 도서관기반 특화 프로그램으로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

이제 도서관 현장은 기관의 특성 없이 인기일변도에 편승하여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카피하여 개설하고 있는데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다.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도서관의 프로그램으로 적합한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며, 강좌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학습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도서관 기반의 강좌로 접목하되, 기관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성과 주제가 가미된 브랜드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의 정체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특성화 강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서관장의 강력한 마인드와 담당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인기 강좌의 수료생을 많이 배출하여 실적을 높이기보다는 다소 적은 인원이라도 도서관기반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강좌를 특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서를 매개로 하는 독서토론회를 기획하여²⁴⁾ 지식 자원에 대한 단순한 소개 차원을 넘어, 지식 자원의 중개기능을 고급화할 수 있는 독서지도 혹은 독서교육 기능 그리고 지식인과 시민을 직접 연계하는 고급화 방안을 찾아내어 실천해야 한다.²⁵⁾ 또한, 공간만 제공하는 강좌보다는 사서가 주인이 되어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매개로 한 자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주제별 독서토론회, 역사적·사회적 관심사에 따른 도서전시회, 정보문해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적응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하여 운영하고²⁶⁾ 학습공간과 자료를 매개로 사서가 학습을 지원하는 자기주도학습 강좌를 일상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도서관의 책과 관련된 매체 만들기, 글쓰기지도, 신문활용지도, 영어동화읽기, 논술지도, 동화구연 등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개발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개발된 강좌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으로 수준을 연계시켜 도서관 영역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2) 공공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공공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했다. 하지만, 국외의 사례에서는 소외계층 대상의 문해교육이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상황이 사뭇 달랐다. 물론 국외의 현실과 우리의 여건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맹률이 여전

24) 호주의 Helensvale, Nerang, Robina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르신주간에 독서토론 기획.

25) 이제환, 디지털시대의 도서관정보정책(서울 : 한울 아카데미, 2003), p.33.

26) 송정숙, "한국 공공도서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2003, 3), pp.418-419.

히 높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소외계층사업' 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문해교육이나 장애우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제안하여 그 지원금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적 기관으로서의 여건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윤희윤은 소외계층인 장애인이나 노령자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²⁷⁾ 이 외에도 호주처럼 공공도서관과 주의회가 연계하고 '평생학습주간'이나 '어르신주간'을 정하여 실제 식생활이나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문해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²⁸⁾ 이러한 사업을 계획함에 무엇보다 공공도서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공적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나. 수준별 교육연계체제 구축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평생교육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요구는 지금까지의 여가와 취미 그리고 교양교육 중심에서 자기계발과 직업창출 등과 같은 심화교육에 대한 요구로 변모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변화된 요구를 수용할 교육지원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대부분 공공도서관에서는 초급과정 이후 동아리 활동으로 안내하거나 다른 기관의 심화교육으로 안내하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공공도서관의 기초교육을 보다 상위 수준의 고급교육으로 연계 시키기 위한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를 권장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가 구축된다면, 참여자와 운영자가 공통으로 느끼는 '교육수준'의 관련 문제를 개선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은 기존에 수행해 오던 도서관 기반의 기초교육을 그대로 수행하되, 심화교육의 수월성이 담보되는 강좌는 대학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인력'으로의 연결을 꾀할 필요가 있다. 대학 평생교육원과의 연계는 기존의 시설, 교육, 학습 자원 등

27)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부터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총 25개 프로그램(비문해 9개, 노인 8개, 여성 4개, 저소득 및 저학력 1개, 장애인 1개, 기타 1개)을 선정하였는데 공공도서관은 2개관(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의 노인대상의 '사랑방학교 만학 배움터'와 화도진도서관의 장애인의 '한마음 음악교실과 민들레 독서회')이다. 윤희윤, 전계논문, pp.63-64.

28)

공공도서관	교육 강좌
Helensvale	*태극 & 기공, *독서토론, *관절염 건강식
Southport	쿵후, *노인 자기방어 대처법
Nerang	풍수, 복근운동, *독서토론, *마인드컨트롤, 암 예방과 치료
Robina	쇼핑과 음식, *독서토론, *피부암예방과 초기발견
Burleigh Heads	슈퍼마켓 투어, *암지원서비스
Burleigh Waters	먹고 움직이고 건강 챙기기, *뼈강화음식
Elanora	음식라벨읽기, *노인 몸균형훈련
Runaway Bay	값싼 음식, *오늘의 음식
8개 기관(21개 강좌)	* 표시는 어르신주간(seniors) 동안 운영되는 강좌 그 외는 성인학습자주간이벤트(adult learners) 강좌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기관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수강생 증대나 교육 비용의 절감 효과를 통해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이러한 ‘교육강좌의 연계’ 모형은 아직은 매우 부족하지만, 공공도서관과 민간단체 그리고 대학이 연계하여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울산지역 이외에도, 인천북구중앙도서관의 독서지도사,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의 독서지도사 및 논술지도사, 충북중앙도서관의 글쓰기지도사 및 신문활용지도사 강좌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개발 및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2. 평가를 위한 모형 개발

공공도서관이 교육 강좌의 방향과 교육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도서관기반의 특화 및 공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공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블루오션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교육강좌 평가 모형을 만들어 지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교육 강좌의 평가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교육방법, 그리고 품질관리시스템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표 7>과 같다.

먼저, 교육목표 측면에서는 기관의 교육이념, 도서관교육의 특성,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목적, 목표 설정의 과정 및 방법은 적절하였는지? 혹은 도서관교육의 목표가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자가 기대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와 같은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기관의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공공적 내용의 기초과정과 도서관의 특성화 과정을 적절히 편성하고 이들 강좌의 이론과 실습수업 시간을 적절히 배정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평가지표로서는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① 교육과정이 교육목표와 맞게 편성되었는가? ② 교육과정 중 공공적 내용의 기초과정의 비율과 도서관 특성화 과정 비율이 적절한가? 등을 확립해야 한다.

29) 16개 광역시·도에서 2가지 교육연계 모형이 발견되었다. 먼저, 한국심성교육개발원과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의 연계모형은 인천(인천북구중앙도서관)과 대구(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의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자격증관리기관은 프로그램 제공 및 강사지원 그리고 자격관리를 하고, 공공도서관은 교육생을 모집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자체의 승계모형은 기초과정을 무료로 수료(일반기초과정과 사서도우미지원교육)하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유료교육프로그램인 3~4단계의 교육과정으로 연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은 기초교육과정만 이수하고 유료과정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현격히 줄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그 대안이 바로 본 연구자가 제안한 공공도서관에서 배출된 기초교육 수료자를 대학의 심화과정과 연계하되, 양성된 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보강한 교육모형이다. 울산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울산평생교육정보센터 편, 2006년 울산지역 평생교육관계자 연찬회(울산 : 동센터, 2006).

〈표 7〉 강좌의 평가 모형

대영역	소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교육 과정 운영	1.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1) 교육목표(10점)	① 교육목표의 적절성(10점)
		2) 교육과정(10점)	①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10점)
	2. 교육방법	1) 이론수업 및 평가(20점)	① 수업계획서의 체계성(5점) ② 수업방법의 다양성(5점) ③ 강의 평가 여부(5점) ④ 학습결과 평가 여부(5점)
		2) 실습수업 및 평가(20점)	① 실습계획서의 적절성(5점) ② 실습방법의 적절성(5점) ③ 실습강사의 적절성(5점) ④ 실습평가의 적절성(5점)
	3. 품질관리시스템	1)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20점)	① 교육평가 개선 및 시행 여부(10점) ② 수료율(10점)
		2) 특성화 노력(20점)	① 교육과목의 질적 수준 향상 노력(10점) ② 평생교육발전계획 및 실적(10점)

* 교육체계 평가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은 부적합 판정.

** 이 자료는 2006년 학점은행제 전공단위 평가편람(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교육방법의 측면에서는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 평가하여야 한다. 먼저, 이론과정 수업 및 평가 측면에서는 기관의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공공적 내용의 기초과정과 도서관의 특성화 과정이 적절히 배정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평가지표로는 ① 수업내용의 적절성 및 충실성 ② 효과적 교수 방법 ③ 합리적 평가 실시 ④ 평가반영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실습과정 수업 및 평가 측면에서는 이론 목표와 연계된 실습과정 목표를 설정하고 강사와 보조강사가 적절히 참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습교육을 운영하고 개선노력을 하는지 반영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평가지표로는 ① 실습과정목표의 적절성 ② 실습교육방법의 적절성 ③ 실습지도교수의 적절성 ④ 실습평가의 적절성 등을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시스템은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과 특성화 노력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여야 한다. 먼저,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 측면에서의 평가기준은 도서관 특성이 반영된 교육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과정 개선 기구를 중심으로 개선실적이 있으며, 수료 때 기대수준과 일치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로 ① 교육성과 평가 시행 여부 ② 교육과정 개선체제의 적절성 ③ 수료율 등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특성화 노력 측면에서의 평가기준은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특성화 과정의 장·단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로는 도서관 특성화 계획 및 실적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체계성 확립, 교육수준별 교육연계체제 구축 그리고 교육강좌 평가 모형 개발 등이 상호유기적으로 이루어져 평생교육체제의 정립에 적용

된다면 참여자와 운영자가 교육강좌 상에서 제기하는 제 문제점을 점차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이 연구의 조사를 근거로 이 연구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강좌가 도서관 정보와 관련된 문해 강좌보다 일반교양 및 취미강좌가 더 많이 운영되어 학계나 현장에서 강좌의 정체성 논의가 식지 않고 있다. 이런 증거가 연구논문이나 기관의 내부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분명히 확인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범주는 성인기초교육, 시민성교육, 직업교육훈련, 학력인증교육, 자기계발교육 등의 5가지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기계발교육, 시민성교육, 직업교육훈련, 성인기초교육, 학력인증교육 등의 순으로 강좌가 운영되고, 특히 자기계발교육에 치중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 강좌의 수준은 기초적, 개괄적이며, 전문교육보다는 일상적인 고민 해결이나 대중화, 실생활 연계에 초점을 둔 교육 수준을 설정하고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강좌 실태 조사에서 학습자들의 주요 학습목적은 사회참여나 수료증 취득보다는 자아발전이나 교양증진 그리고 여가활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학습목적은 도서관이 도심권에 위치하는 경우 지식향상 및 자아발전을 위해, 그리고 도심권이 아닌 경우 교양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등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에 따라 강좌 선호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학습자 요구분석을 통해 강좌개설을 해야 함을 시사했다. 그리고 강좌의 내용은 자기계발교육 영역에 포함되는 취미 및 교양 강좌에 학습자들이 몰리고 있어, 도서관기반의 강좌가 부족하였으며, 학습자의 나이가 40대 미만에서는 자녀지원강좌, 40-50대는 자기계발강좌, 50대 이상에서는 건강강좌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강의수업방법은 강의와 실습, 강의, 실습과 견학, 토의 순으로 시행되며 강좌의 특성에 따라 강의 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강좌를 받은 학습자들의 교육성과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개인적 자본 영역(신체, 정신적 건강, 자기계발, 자아실현, 자질향상, 교양증진 및 여가선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 영역(사회변화의 적응 지식과 능력, 대인관계 향상,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자녀에 대한 도움), 인적자원개발 자본영역(취업, 전직, 직업수행능력, 사회적 인정, 필요한 지식과 정보, 자격증 취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강좌가 자기계발이나 자아실현, 교양증진 및 여가선용 그리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강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평생 교육 강좌의 문제점으로 학습자는 심화교육의 부족과 강의방법의 부적합 그리고 교육의 피드백 부족, 강사는 도서관기반 및 실생활 밀접 강좌의 부족과 교육강좌의 과정별 세분화 및 수준별 교육 부족, 운영자는 연계교육의 부족과 강좌의 정체성 부족 그리고 공공적 영역의 강좌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여섯째, 공공도서관의 평생교육 강좌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교육 강좌의 차별성 확립과 수준별 교육연계체제 확립 그리고 강좌의 평가 모형 개발을 제안하였다. 강좌의 차별성 확립을 위해서는 도서관 기반 특성화 강좌를 개발하거나 공공성과 관련된 강좌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수준별 교육연계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상위수준으로의 교육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강좌의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강좌의 정체성이 담보되도록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